

수소 홍보·체험 '수소놀이체험관' 밑그림

전주시, 건립 설계공모안 심사위원회 열고 건축사사무소 다감·솔트 공동 작품 선정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마치고 착공 2023년 1월까지 사업비 65억원 투입 건립

친환경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줄 수소놀이체험관의 밑그림이 나왔다.

전주시는 최근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설계공모안 심사위원회를 열고 건축사사무소 다감·건축사사무소 솔트의 공동 응모작인 'Floating cycle'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수소놀이체험관은 수소에 관한 홍보·체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수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간으로,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자연생태관 인근에 건립된다. 시는 지난날 설계공모 절차에 돌입해 총 3개 작품을 접수했으며, 지난 1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전 과정은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 다감·건축사사무소 솔트의 'Floating cycle'는 미래지향적인 수소의 이미지와 주변의 자연환경을 끌어들이는 공간구상으로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설계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근 전주자연생태



수소놀이체험관 조감도.

관과 외형상 조화를 이루는 장소적 특성을 잘 살린 점, 조성 목적과 주요 테마의 의미를 잘 반영했던 점 등이 좋게 평가됐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1월 수소놀이체험관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놀이체험관은 오는 2023년 1월까지 총사업비 65억 원이 투입돼 연

면적 1130㎡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관리·운영공간이, 2층에는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수소시범도시 전주를 소개하는 수소 홍보 공간이, 3층에는 수소와 수소에너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놀이 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여기서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수소의 힘을 캐릭터화한 'Little Big Hero'와 함께 '아주 작은(Little) 수소가 내는 아주 큰

(Big) 힘!'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된다.

시는 수소놀이체험관이 건립되면 시민들이 수소에너지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로 혁신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에 선정돼 수소연료전지 실증사업과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소교통과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경제'를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소시범도시인 전주가 수소 경제 홍보와 체험의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수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온라인 평생학습 포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평생교육' 주제 평생교육 방향 논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전주시 온라인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평생교육"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평생학습 생태계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대학교와 지역 평생교육 등 평생교육 영역의 6가지 주요 이슈들을 폭넓게 다뤘다.

이날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 학습융합 생태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양홍권 대구대학교 교수는 "평생학습의 교육목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창의력과 응용력, 적응력 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계입식 수업, 시뮬레이션 수업, 쌍방향 화상회의식 수업, 역할극 등 혁신적인 다양한 교육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평생교육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하영(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은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법정 단체화,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공공기관 평생교육 직렬 신설, 평생교육사 채용 현실화, 평생교육사 실습 관리 등 평생교육사가 원하는 정책들에 대해 소개했다.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미래 개인의 역량은 디지털 스킬, 휴먼 스킬, 메타 스킬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유연성과 적응성, 진취성과 자기주도성, 리더십과 책임감, 비판

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지능 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주안점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운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기존 평생교육 방식의 한계와 시민 역량의 성장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의사결정하는 방식의 전환과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교실에서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수업이 보편화되고 현장실습이나 체험도 가상현실(VR)을 이용할 날이 머지않았는지 모른다"며 "평생학습에서도 하이브리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매체를 적용하는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유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교육과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ICT, 학습역량, 비대면 학습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이 개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대구광역시,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경기도 부천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주시 등에서 참여한 평생교육사 60인의 토론도 이어졌다.

향후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평생학습 정책과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같이 모색해 시민들이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 영상은 '평생학습도시 전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 종합대책 추진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의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전주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에 따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장철 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평상시(228톤/1일)보다 약 50%(25%) 늘어난 287톤 이상이 더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50l 짜리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기로 했다.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음식물 수거용기가 넘칠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l)나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50l)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100l 짜리 종량제 봉투나 비규격봉투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되지 않는다.

또 김장쓰레기 다량배출원에 대해서

는 생산자가 되겨져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 불법투기 지역은 순찰을 강화해 적지 지역을 수거하고 민원 사항에도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이 담긴 홍보 스티커와 전단지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마대자루와 노끈, 양파망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의 고장 원인이 되는 이물질 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배추쓰레기는 잘게 찢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고, 마늘대와 고추꼭지 등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전주시 청소지원과 관계자는 "김장철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수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자발적인 배출요령 준수와 김장쓰레기 줄이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전주시가 육성하려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하여 갯년기 남성의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아줄 바이오제품 개발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지난 11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과 기관·대학·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는 '효소기반 상용화 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날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심포지엄에서 최철용 조선대학교 교수는 '천연물산업화 우수사례'를 주제로, 이민재 (주)트라이콤무역 이사는 '건강기능성 식품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공현석 코사바이오대표는 '초

고령화시대 핵심 틈새시장인 남성 갯년기 제품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갯년기 남성의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아줄 바이오제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오병준(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정석근(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소장인 한갑훈 우석대학교 교수 등이 전북·전주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주제로 담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기관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오병준 연구원장은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전라북도 와 전주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기업과 상생 발전하는 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가져

전주시와 전주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 성동화)는 지난 12일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전주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복지관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5곳의 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인권교육도 이어졌다.

또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해 나가자 '바로! 지금! 나부터'를 슬로건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선포식도 가졌다.

김재화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복지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전도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